



왜?나만 "팔자주름"심
할까?+개선법 공유(...



청력 안좋다면 3분만
읽어보세요



누가 뭐라해도 '이 주
식' 꼭 사모으세요



우량종목 투자하는 방
법 '이것' 따라해라

Editor's Choice



의식불명 연인을 인공
지능으로 복원한 여친
의 속내



'최강야구' 몬스터즈,
서울고 꺾고 5연승... M
VP 임상우의 맹활약



탕웨이 "아이는 내 인
생의 전환점, 남편이 또
영화 찍자고 하면..."

영화

봉준호 감독의 <옥자>, 미국 환경미디어 협회에서 작품상 수상

[외신] <모아나> 제치고 수상 영예... 봉준호 대신 프로듀서 대리 수상

구건우(woolili)

17.09.25 17:38 최종업데이트 17.09.25 17:38



▲ 영화 <옥자>의 레드카펫 행사에서 셀프 카메라를 촬영 중인 봉준호 감독. © 넷플릭스

지난 23일(현지시각) 봉준호 감독의 <옥자>가 제27회 미국 환경미디어협회 시상식(Environmental Media Association Awards)에서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했다.

환경미디어협회 시상식은 한 해 동안 환경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미디어 작품과 인물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다. <옥자>는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 <모아나>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. 봉준호 감독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고, <옥자>의 프로듀서 최두호와 영화 속 실버 역할을 맡았던 데본 보스틱이 대리 수상했다.

이날 시상식은 윌 스미스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가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, 올해의 영화인은 나탈리 포트먼이 그리고 올해의 음악은 윌 아이엠이 수상했다. 올해의 기업인에는 음반제작자 러셀 시몬스와 영화제작자이자 존 폴 미첼 시스템즈의 CEO 존 폴 디조리아가 수상했다.

한편 봉준호 감독의 <옥자>는 과잉도축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며 동물애호가들과 채식주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었다.